

전문가풀 금융 자본 분과회의 결과 보고서

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원호

I. 개요

1. 일시: 2005년 2월 17일 (금) 17:00-19:00

2. 장소: 12층 회의실

3. 참석자: (가나다 순)

- 김진일 교수 (국민대)
- 김홍중 박사 (KIEP)
- 남광희 교수 (국민대)
- 백승관 교수 (홍익대)
- 송원호 박사 (KIEP)
- 오용협 박사 (KIEP)
- 이영섭 교수 (숙명여대)
- 왕윤중 박사 (SK 경영경제연구소)
- 윤덕룡 박사 (KIEP)
- 주한광 교수 (국민대)
- 최창규 교수 (명지대)

4. 의제

금융·자본 관련 주제 발표: 김홍중 박사 (KIEP)

“EMU 협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징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”

II. 박성훈 교수, 김홍중 박사 논문 발표 요약 (상세한 내용은 별첨 논문 참조)

- 본 연구는 1988-1991년의 기간 중 단일통화를 도입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진행했던 협상, 즉, 유럽의 경제통화동맹(Economic and Monetary Union: EMU)을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을 분석함.
- 특히, 본 연구에서는 EMU 가입을 위한 협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러한 특징이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- EMU 협상 과정은 통화협력을 막 시작하는 동아시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.
- 첫째, 동아시아 각국은 최적통화지역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 및 교역의 상호 의존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.
- 둘째,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는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진지하게 연구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음.
- 셋째, 이와 함께 유럽에서의 ERM의 위기와 통화통합의 방식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.
- 넷째, 동아시아 국가들은 WTO, IMF 등 다자기구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.
- 환경협력, 통화협력, 농업 및 수산업, 산업 협력 등 지역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의 경험을 축적하고 가능한 경우 구속력있는 협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.
- 다섯째, 유럽의 경험은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반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줌.
-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내의 농업 및 지역정책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시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음.

- 여섯째, 핵심적 추진세력의 확보가 중요함.
 - o 한중일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, 중국과 일본이 지역의 역내 통합을 이끌만한 리더십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, 한국의 입장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.
- 일곱째, 통화통합의 거시 경제적 여건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및 경제 통합은 한중일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 이루어진 선진그룹을 역내에 두는 것이 필요함.
- 여덟째, 유럽에서와 같이 열성참여자(crazy boys) 또는 정책기업가(policy entrepreneur)를 양성하고 제도화하고 이들의 힘을 빌림으로써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·확대하는 것이 필요함.

III. 논평 및 토론:

- 그동안 기술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missing link를 채워주는 논문임.
- 특히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준 점은 본 연구의 강점임.
- 1950년대 당시의 유럽과 지금의 동아시아를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.
- 유럽은 50년대에 이미 안정상태(steady state)에 도달했으나, 동아시아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.
 - o 경제규모와 인구규모 등에서도 차이가 남.
- 한중일간의 논의는 나머지 동아시아국의 추종을 불러일으킬 것임. 따라서 한국이 중재자 입장으로서는 앞장서갈 필요가 있음.

- 동아시아 통합의 비용 편익분석은 일반인 입장에선 매우 애매모호함. 따라서 통합과정은 정책담당자 중심일 수밖에 없음.
- 유럽통합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을 중국과 일본이 각각 수행할 수 있을 것임.
- 동아시아는 통합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함. 따라서 유럽통합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고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야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적용될만한 함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임.
 - 유럽에서는 안정(security)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. 그것을 위해 경제통합을 먼저 진행시킨 것임. 그러나 동아시아는 이러한 문제를 사소한 채 경제통합을 먼저 시키려고 하는 듯함.
- 본문에 언급된 주제가 많으므로 제목의 'EMU 협상'은 매우 한정된 수식어로 보임. 따라서 제목을 좀더 포괄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.